

시론



김 선 옥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는 하나둘 잎을 내리 놓는다. 한때 푸르렀던 잎들이 바람에 흔들 리다 조용히 땅으로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 며 문득 생각한다.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의 자리에서 물러날 텐데, 그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무엇이 남을까. 이름일까, 성취일까, 아 니면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일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오랜 세월 곁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아니다. 힘든 순간 말없이 곁을 내 어주었던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 었던 사람, 무심한 듯 건넌 한마디로 다시 일 어설 힘을 주었던 사람이 오래 마음에 남는 다. 우리는 흔히 삶을 성취의 크기로 평가한 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 졌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진정 한 무게는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 국 남는 것은 소유의 목록보다 관계의 기억 이며, 업적의 숫자보다 사람의 마음에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삶을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바라봤다. 인간은 혼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통 해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 우리가 어떤 사 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혼자 있을 때의 생 각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태 도로 대했는가에 있다. 삶의 깊이도 어쩌면 만남의 숫자가 아니라 만남의 진실함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닐까.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이름을 정확히 기 억하지 못하면서도 마음은 기억하는 사람 들 이 있다. 학창 시절 선생님이 무심코 건넌 격 려의 말, 힘든 시절 친구가 내어준 따뜻한 손 길,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던 사 람의 침묵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음 한편 에 남아 있다.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 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지워지지 않는 상 처가 되기도 한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 음에 닿은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 이가 들수록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된 다. 꼭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잘하고 있다 고 격려해주며,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 하나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작은 친 절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오 래 밝히기도 한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 일임을 이야기한다. 한 번 마음을 나눈 사람 에게는 그 관계가 남긴 흔적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익 숙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말 해서선 안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자주 ‘나중’을 약속한다. 나중에 만 나면 되겠지, 다음에 고맙다고 말하면 되겠

지, 언젠가는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 생 각한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나중’인지도 모른다. 다시 만 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 다. 오늘 건넌 수 있는 따뜻한 말은 오늘 건네 야 한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마 음에만 담아두지 말아야 한다. 가을의 나무는 잎을 내려놓으면서도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우리에게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더 많 이 가지는 삶보다 더 따뜻하게 나누는 삶, 더 높이 올라가는 삶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 는 삶이 우리를 오래 살아 있게 한다.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기억 속 한 장면 이 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으 로 기억할까.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보다 함 께 있을 때 편안했던 사람, 어려울 때 곁에 있 어준 사람,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느껴졌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 을까. 삶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나간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그 만남이 남긴 울림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 은 아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 람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계절이다. 우 리도 언젠가는 한 장의 잎처럼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될 것이다. 그때 이름보다 오래 남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넌 마음일 것이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남긴 것으로 기 억되는 존재이기에, 오늘의 한마디와 한 곁 음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社說

국토교통 시스템 노린 사이버 공격 막아야

‘국토교통 시스템’ 노린 사이버 공격이 연평 군 9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 시 스템은 철도·도로·공항부터 주택정보까지, 국 민 일상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다. 만약 이들 시스템이 멈추거나 훼손되면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 전반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 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 터 2025년까지 국토부와 국가보안관제체계가 적용된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공격 시도 는 총 4천77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 년 1천21건에서 2023년 812건으로 줄었다가 202 4년 다시 1천19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937 건으로 확인됐다. 사이버공격이 우리 주변에 상시적인 위협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이다. 공격 유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 위·변조를 노린 공격 유형이 2천600건으로 전 체의 54.6%를 차지한데 이어 ‘단순 침입시도’가 1천902건으로 39.8%를 차지했다. 두 유형을 합

하면 전체 탐지 건수의 94.4%로 만약 공격 수법 이 더 고도화 될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된다.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766건으로 가장 많 았고, 한국부동산원 655건, 한국철도공사 579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57건, 한국도로공사 4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 운영과 관련 된 SR의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건수는 2021년 23 건에서 2025년 175건으로 4년 동안 약 7.6배 증가 했다. 더욱이 이들 기관은 국민생활 및 국가 기 반시설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 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매년 1천 건 안팎의 사이 버공격 시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토부 산하기관 상당수 기간이 국가보안관계 체 계에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관들 이 국가보안관계 연동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제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철도·도로·공항 등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는 어느 곳에도 사이버공격이 침투하지 못 하도록 관리 책임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충장축제, 따뜻한 울림의 장이 됐으면...

전남광주대포 도심 길거리 축제인 ‘제23회 광 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7일 개막했다. 오는 11일 까지 5일간 금남로와 충장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충장축제 제23번째 이야기,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세대마다 가슴속에 간직한 노래 를 매개로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새로운 기억 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금남로와 충장로는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함께 거닐던 거리이며, 젊은 날의 사랑과 우정이 깃 든 장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광주의 근현대사를 함께해 온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추억의 노래’ 를 주제로 축제가 열렸다는 자체가 지역민들에 게 각별한 의미를 제공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충장축제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 광 콘텐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 민들의 참여와 공감이 중요하다. 물론 개막 첫 날 전일빌딩245 앞 주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쇼 에는 ‘조선판스타’ 우승자 김산옥과 영화 ‘와이 키키 브라더스’의 보컬 김진웅에 이어 대한민 국 대표 록밴드 YB가 관객들과 함께 노래했다. 서로 다른 음악적 매력을 지닌 가수들이 무대

에 올라 관객들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는데 충 분했다. 또한 이날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축제장 곳곳에서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추억 의 노래 테마거리’ 개관식이 열린데 이어 금남 로 2-3가에서는 13개 행정동이 참여하는 상징물 전시전이 선보였다. 각 동이 선정한 추억의 노래 를 지역의 이야기와 특색에 담아낸 상징물은 이 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는 10일 열리는 충장축제의 대표 프로 그램 ‘충장 Original 페어리드’는 대표 프로그 램이다. 각 지역의 개성과 이야기가 거리로 나 오고 시민들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충장축제만의 매력을 살릴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충장축제의 주인공은 광주에서 소중한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이다. 올해 충장축제가 단순히 광주의 과거를 회상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세대 와 세대, 그리고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서로 연 결하는 따뜻한 울림의 장이 됐으면 한다.

의정칼럼



오 행 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댐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 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국가의 핵심 기반시 설이다. 댐에서 확보된 물은 도시와 산업단 지 등 광범위한 지역에 공급되며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댐이 제공하는 편익의 이면에는 하 류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와 부담이 존 재한다. 평시에는 질은 안개와 냉해로 주민 건강과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집중호우 때 급격한 방류는 침수 위험을 높인다. 갈수기 하천 유량 부족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 으로 이어지며 수온과 하상 변화, 염해 등으 로 농업과 어업이 영향을 받는 사례도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은 담수와 인접한 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댐 운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류 지 역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댐의 영향은 담수지 주변의 일정한 거리에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서 끝나지 않는다. 방류된 물은 하천을 따라 이동하면서 하류의 수위·유량·수질·수온은 물론 하구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 서 지원 대상도 단순한 거리나 행정구역이 아니라 물의 흐름과 실제 영향 범위를 기준 으로 정해야 한다. 주암댐과 섬진강 수계는 이러한 지원 제도 의 사각지대를 분명히 보여준다. 주암댐은 광주와 순천·여수·광양 등에 식수를 공급하 고 전남광주 동부권의 생활·공업용수를 책 임지고 있다. 그러나 댐과 취수시설 운영에 따른 유량 변화는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이어 진다. 하류에서는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과 해수 유입에 따른 염분 상승, 재첩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생태계와 주민 생업에 대한 우 려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래 성장동력 확 보를 위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유치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 모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주 암댐을 비롯한 지역 수자원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 유치는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중요한 기회다. 다 만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의 생태유량이 위축 돼서는 안 된다. 국한가뭄이 반복되는 만큼 신규 용수 공급이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고 필요한 유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주암댐 등 7개 댐의 과다 방 류로 발생한 하류·연안지역 피해를 조사하 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홍수피해의 사후 구제만으로는 평상시 댐 운영에 따른 유량 감소와 염해·냉해, 주민 건강과 농어업 피해를 종합적으 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댐 하류 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피해 예방·구제, 주민 지원, 농어업 지원 및 생태계 복원을 담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댐 운영에 따른 실제 영향을 조 사해 정하고, 댐 용수 판매와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 산업용수 공급에 앞서 기존 용 수와 하류 생태유량을 보장하고, 하류지역 지 방자치단체와 주민이 댐 운영과 용수 배분, 지원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댐 하류 지역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 다. 국가 수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편익과 부 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다. 댐의 혜택은 여러 지역과 산업이 함께 누리면서 환경적·경제적 부담만 하류지역에 전가해서는 안 된 다. 국회와 정부는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생업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댐 하 류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독자투고

가을은 걷기 좋은 계절이다. 날씨가 선선 해지면서 산책이나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도 많아진다. 하지만 해가 짧아지는 만큼 보행 자 교통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 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 망자의 28.1%가 9월부터 11월 사이에 발생했 다. 특히 10월에는 1천616명이 교통사고로 숨 저 연중 가장 많았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해가 진 뒤 어두 운 옷을 입은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가 많다. 가로등이 많지 않은 골목길이나 주 택가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근접해서야 사 람을 발견할 때도 있다. 가을철에는 날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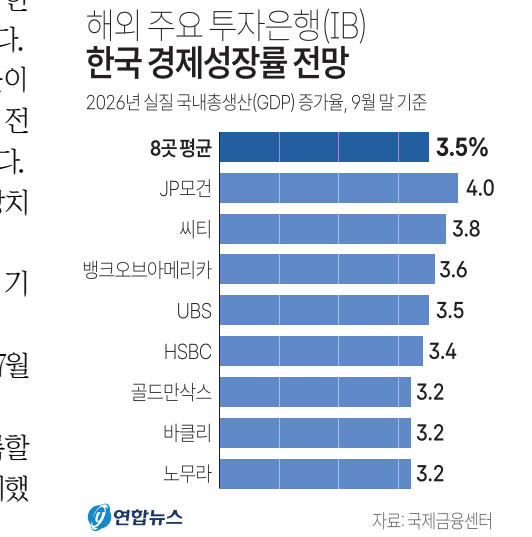
두워지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나 골목길에 들어설 때 속도를 미리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 특 히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것이 좋다. 보행자 역시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라고 해서 차량이 반드시 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차가 멈 추는 것을 확인한 뒤 건너고, 도로를 건널 때 는 잠시라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것이 좋 다. 밤에는 밝은색 옷을 입고, 주차된 차량 사

이에서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조금만 조심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다. 운전자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행자는 ‘차가 알아서 멈추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 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대비하면 걱정 할 일이 없다는 말이다. 깊어가는 가을,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오갈 수 있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한 번 더 살피는 여유’를 당부드린다. 〈김찬 광주광신경찰서 월곡지구대〉

그래픽 뉴스

해외IB, 올해 한국 성장 전망치 3.5%로 상향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에 이어 내년 한 국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 망치 평균은 3.5%로, 지난달(3.3%)보다 0.2%p 올랐다. IB들은 지난 4월(2.4%)부터 6개월 연속 성장 전망치 를 상향 조정해왔다. IB 8곳은 모두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 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대 성장률을 예측한 IB 수는 6월 말 3곳에서 7월 말 6곳, 9월 말 8곳으로 늘어났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4.0%를 기록할 것이라며 주요 IB 중 유일하게 4%대 예상을 제시했 다. 이는 8월 말(3.8%)보다 0.2%p 높은 것이다. 이외에도 UBS(2.8→3.5%), 뱅코브아메리카(3.1% →3.6%), 씨티(3.7→3.8%) 등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1.1%p나 높였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IB들의 눈높이 상향 조정은 내년 수 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IB 8곳 중 6곳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이에 따른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8%로 지난 8월 말 평균(2.5%)보다 0.3%p 상승해 한국은행 전망치(2.9%)에 근접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崔宰豪** **주필·이사 朴恩成** **편집국장 崔權範**

(우)616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대로 338 3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국 사업본부 업무국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